사이유 SciU

'사이언스 유비쿼터스(Science + Ubiquitous)'라는 뜻을 가진 '사이유(대표 홍대길)'는 국내 유일의 과학문화벤처기업이다. 현재 과학 전문 쇼핑몰 '사이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 IT월드에서 과학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과학문화벤처 가능성을 믿고 창업

사이유 홍 대표는 <과학동아>, <디지털타임스> 등에서 과학분야 기자로 활동한 인물.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출신인 그는 과학문화벤처의 가능성을 믿고서 창업을 결심했다. "기자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문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하면서 과학문화산업의 비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과학문화상품 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사이유가 추구하는 과학문화벤처는 과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학문화 상품을 만들고 관련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주요 비즈니스는 과학 전문 쇼핑몰인 '사이숍(www.scishop.kr)' 운영과 과학교육사업이라고. '사이숍'은 제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쇼핑몰과 달리 과학 캠프, 과학 이벤트 등 다채로운 과학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과학 관련 커뮤니티와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과학교구를 생산하는 독일기업 코스모스의 실험키트 및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오하우스 저울을 판매하는 등 제품에 있어서도 다른 사이트와 차별화했다.

과학교육사업으로는 현재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 IT월드에서 천문교실, IT원리교실, 그린에너지교실 등 7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분야 대기업 만드는 게 꿈

올해 1월 1일 창업의 첫 걸음을 뗀 사이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이유가 이룩한 업적을 살펴보면 꼭 기간이 회사역량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제1회 노벨과학에세이대회 기획 운영, 정보문화가족축제 기획운영, 국립중앙과학관 주말과학기술축제 기획 운영, 제29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 수상자 과학기술캠프 운영 등 다양하다.

홍 대표는 현재 주력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했다. "쇼핑몰과 과학교육사업에서 노하우가 쌓이면 과학문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과학 관련 교구, 과학 관련 뮤지컬, 과학관련 테마파크 등이 되겠지요. 현재 정부의 정책연구로 '과학마을(Science Village) 조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게 완성되면 새로운 과학문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원을 만들지는 못했다며 겸손과 야망을 동시에 말하는 홍 대표. 내년에는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될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이에 그에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묻자 사이유만의 포부를 밝혔다. "대학이나 국책 연구소와 연계해 새로운 과학교구 상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과학문화상품은 국제간 문화적 장벽이 가장 낮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가켄(學硏)에서는 과학교육과 관련 교구를, 독일의 코스모스(KOSMOS)에서는 과학 관련 홈스쿨링 상품을, 그리고 영국의 과학박물관, 프랑스의 라빌레트 산업과학도시, 일본의 과학미래관 등에서는 테마파크와 체험학습의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사이유 홍대길 대표(좌측에서 첫 번째)는 과학문화벤처 분야에서 1등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과학문화벤처 분야에서 삼성이나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홍 대표. 서구에 비해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내 과학문화시장에 사이유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www.scishop.kr